

U대회 수영장 정치개입땀 후유증 심각

광주시 “5개구 접근성·균형배치 고려 결정” 광산구 “원안 건립” 남구 “균형발전” 갈등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수영장 유치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전임 시장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남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정치권까지 유치경쟁에 개세하면서 수영장 건립사업이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합리적인 부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U대회 수영장 조성 과 관련, 수영장 입지는 5개 구간 균형배치, 교통접근성과 시설 이용객

수, 메인스타디움 및 선수촌과의 연계성, 사후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지 값이 얼마나 저렴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수원수영장 원안 건립 추진위원회’ 소속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시장 때 결정돼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계약까지 마친 수원수영장 건립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추진위 간부들의 주장에 대해 “전임 시장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다. 원안을 지킨다고 약속할 수 없다”

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이어 “수영장 부지는 광산구에 국한하지 않고, 광주시 5개구 전역을 대상으로 알아보겠다”며 “현재 여러 곳에 적합한 용지를 찾아보려고 지시해놓은 상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 중간결과가 나오면 시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임 시장이 결정했던 수영장 부지를 사실상 폐기하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광주시 체육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수원수영장 부지는 평당 150만원이 들어 부지매입비만 200억원에 상회, 건립비까지 합쳐 830억원이 넘는다고”며 “최종 용역결과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영장 입지를 결정하겠지만, 정치논리가 개입될 경우 광주시 재정낭비와 악화는 물론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원수영장 원안 건립 추진위원회’는 21일 오후 수안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광주 남구청장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구에 U대회 선수촌, 북구에 야구장, 동구에 광주FC 축구연습장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남구와 광산구에 각각 수영장과 체육관을 분산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구청장은 수안동에 비해 토지 매입비 등이 유리하고 평동 포사격장이전으로 광산구에 과학벨트 유치기 검토되는 점 등을 들어 남구에 수영장이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20일(현지시간) 러시아 페트로자보츠크 항주로 인근에 추락한 러스에 소속 Tu-134 여객기의 잔해가 널려있다. 이번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52명 중 44명이 숨졌다.

강운태 시장 국비 확보 전쟁

이들간 7개부처 방문 지원 요청

강운태 광주시장이 21일부터 22일까지 2012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직접 방문해 국비지원을 요청한다.

강 시장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매달 개최하면서 국비지원 논리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를

방문한 강 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등을 잇따라 찾아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 등 33건(9717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확보를 위해 실·국장을 중심으로 이날 말까지 다음달부터 예산안 반영 상황을 살피고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1일 태국 방콕에서 UNESCO 아태지역 사무소측과 ‘2012년 5월 차별반대 도시연합(APCaD) 국제회의의 광주 개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내년 아·태 차별반대도시회의의 광주서 열린다

오는 2012년 UNESCO APCaD(아시아·태평양지역 차별반대도시 연합) 국제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

21일 태국에서 열린 ‘2011년 UNESCO APCaD 국제회의’에 참석한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012년 5월에 APCaD국제회의를 광주에서 개최기로 UNESCO 아·태지역 사무소 측과 합의하고 협정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또 “내년 APCaD국제회의는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 개최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한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네팔 등 회원도시 대표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

2012년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기로 합의함에 따라 광주시의 국제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협력기반 확보에 탄력이 붙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APCaD 국제회의가 내년 5월에 2012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방안 대해서는 UNESCO 아·태지역 사무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PCaD 세계연합에는 세계 70개국 280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는 태국 방콕시를 비롯해 21개국 71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돼 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OECD “한국정부, 대학생 지원 확대해야”

“회원국중 대학 등록금 3번째로 비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대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싸고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도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므로,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부가 더욱 세밀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는 또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60

세 이전의 기업 정년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 시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같은 정책권고를 담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다.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평균인 11.4%보다 훨씬 떨어지고 학자금 대출 비율은 5.7%로 역시 OECD 평균인 8.8%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도록 훌륭하게 설계된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조사 기반의 장학금 제도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성 김 주한 미대사 정부, 아그레망 부여

정부가 최근 성 김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조만간 성 김 대사 지명을 공식 발표하고 상원 인준청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

졌다.

외교소식통은 21일 “정부가 최근 성 김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해 미국에 곧 보낼 예정”이라면서 “미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성 김 대사에 대해 아그레망이 신청된 지 20여 일 만이다.

성 김 대사는 상원 인준절차가 마무리되면 캐슬린 스티븐스 현 대사의 후임으로 오는 8월께 부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성물질 방출 우려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우려되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이종문 개방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우려되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이종문 개방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해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한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20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일

본은 원자로 건물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이날 새벽 2호기의 이종문을 개방한 것과 관련 한일 원전 전문가 회의 채널과 외부성을 통해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새벽 2호기의 원자로 건물 내 습도를 낮춰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로 연결되는

이종문을 개방했다. 문을 열기 전 습도는 99.9%였으나 문을 연 이후 최저 58.7%까지 떨어졌다.

도쿄전력이 이종문을 개방하면서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에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2호기의 문을 열 경우 대기 중에 17억8천만 베크렐(Bq)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방사선 노출량은 일반인의 연간 노출한도(1 밀리시버트)의 1천분의 1에 그칠 것이라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1 제주 골프투어 사은행사

7월 3일, 7월 10일 (단2회)

이제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 수 있는 **골프 전문가 스피드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전문)

광주 왕복항공 출발!! 1박 2일 골프 7월 3일~4일, 7월 10일~11일 (4명이상 출발가능)

01 해비치 리조트 32명(4인1실) 45홀 - ₩299,000

해비치CC 18홀 해비치CC 18홀

02 관광호텔 2인1실 36홀 - ₩299,000

제피로스CC 사이프러스CC 라온CC 아덴힐CC(중 택일)

03 에버리스 골프텔 54명(4인1실) 45홀 - ₩379,000

타미우스CC 18홀 에버리스CC 27홀

04 그랜드 호텔 2인1실 36홀 - ₩399,000

세인트포CC 블랙스톤 CC 핀크스CC(중 택일) 오라CC

♣ 기타 다른골프장 및 숙소 선택 가능합니다. 2박3일 골프투어 및 자유여행, 한라산등반 가능합니다. (요금별도 문의)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그린피, 숙소, 수송차량OR카니발급 렌트카 ♣ 공통 불포함사항 : 캐디피, 전동카, 식사, 기사피, 유가충료
 ♣ 365일 좌석확보! 여름 바캉스 단체관광, 가족여행, 자유여행 가능!

KOREANAIR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판매대리점 예약센터 (주)투어클럽 & 스피드골프투어 ☎ 062)382-8201, 010-3613-7810